

## 4대강 사업, 영산강 수질 악화시켰다

정부 조사평가위 발표

보 설치로 BOD·조류농도 증가  
강 생태계 심각한 후유증 우려  
구미보 등 6곳 보 누수 보강 시급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영산강의 생태학적 산소요구량(BOD)과 조류 농도가 증가하는 등 과거에 비해 수질이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승촌보·축산보 설치와 준설에 따른 체류시간 증가 때문으로, 인 농도가 여전히 높아 조류 발생이 지속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기사 4·15면〉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2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 낙동강(상류 제외), 금강 등에서는 BOD와 조류 농도가 대체로 감소했으나 영산강은 조류의 원인인 식물 플랑크톤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평가위는 그러나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조사평가위는 또 나주 옥정지구 등 3곳에 염도가 높은 준설토를 사용해 문제가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해소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보 주변의 지하수 수위 및 흐름에 변화가 나타나 중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담양호 등 뚝 높이기 저수지 사업을 실시한 110개 저수지 가운데 75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저수지에서 방류수로 인한 양분 및 제방 축적 침식, 균열이 발견되기도 했다.

16개 보 가운데 누수 가능성이 있는 9개 보를 수중조사한 결과 구미보, 달성보, 합천장년보, 장년합안보, 공주보, 백제보 등 6개 보에서 물이 새는 것이 발견됐다.

또 홍수 저감 효과에 대해서는 “4대강 주변 홍수 위험지역의 93.7%에서 위험도가 줄어들었으며, 수자원은 당초 예상한 13억㎥보다 다소 적은 11억7000만㎥를 확보했다”고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4대강사업 당시 했던 대규모 준설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평가위는 밝혔다. 강 바닥 퇴적물의 오염판단과 준설 기준이 미비한데다 정밀평가가 부족했고, 여기에 퇴



문화전당이 빛의 캔버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어린이문화원 옥상정원 등이 빛의 캔버스로 변신했다. 아시아문화개발원은 23일부터 내년 1월까지 문화전당에서 빛의 예술로 꾸미는 미디어 아트 공연(작가 이이남)을 진행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적물 축적결과 ‘제거 사례 기준치’ 이내로 나왔는데도 수질개선 목적의 대규모 준설을 진행한 것은 설득력이 낮다는 것이다.

아울러 4대강 내에 생태공원이 획일적으로 조성돼 수변부 직선화나 하중도 및 모래톱 상실로 서식처의 다양성이 훼손되는 등 생태적 특성이 고려되지 못했고, 하천 환경에 부적합한 수종이 다수 식재되기도 했다.

4대강 사업 이후 흐르는 물에 서식하는 어종이 줄고 고인 물에 사는 어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생태계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조사평가위는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은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충분한 공학적 검토 및 의견 수렴 없이 서둘러 사업을 진행한데다 기술 환경 등으로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

무처장은 “타당성 평가 등이 제외된 부실한 조사”라며 “영산강의 자정능력이 현격히 떨어져 향후 강 생태계에 심각한 후유증이 남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사평가위는 지난 2013년 9월6일 국무총리 소속 민간위원회로 출범해 79명

의 민간전문가가 1년4개월간 보 구조물 안정성, 홍수저감 및 수자원 확보, 수질에 미친 영향, 뚝 높이기 사업 및 농지 리모델링 사업 영향, 문화관광레저시설 조성 성과 등을 조사·평가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비엔날레 신임 이사장에 전윤철 전 감사원장

박양우·강신중 이사 선출

광주비엔날레 이사장에 감사원장과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지낸 전윤철(75·사진)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이 선임됐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23일 “제13차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전윤철 전 감사원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전 신임 이사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감사원 원장 등을 역임한 ‘경제 수장’으로 광주비엔날레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지 도력을 발휘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목포 출신인 전 이사장은 1966년 행정고



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재정·경제·감사 행정의 전문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낸 박양우(57) 중앙대 교수와 강신중(54) 전 광주가정법원장이 신임 이사로, 남원희 회계법인길인 호남본부장이 신임 감사로 각각 선출됐다.

한편 재단은 선출직 이사 17명 가운데 16명의 임기가 지난 22일 끝남에 따라 이날 선임된 이사를 포함해 모두 15명 이내로 새 이사진을 구성할 계획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졸업

5년만에...채권단 75% 승인, 경영정상화 나서

지역 대표 기업인 금호타이어가 5년 만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졸업하고 경영정상화에 나선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 졸업 안전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결과 채권액 기준 75% 이상 승인을 얻어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관련기사 8면〉

채권단 측은 “채권기관 회신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23일 오후 기준으로 채권액 기준 75% 이상이 찬성해 워크아웃 졸업 가결요건은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날 채권단 결의 후속조치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해외법인 채권을 포함한 기존 채권 상환을 2년간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채권단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출자전환으로 보유하게 된 주식을 매각·관리하기 위해 주주협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호타이어 지분은 워크아웃 기간 출자전환에 따라 우리은행 14%, 산업은행 13.5% 등 9개 채권기관이 42%를 갖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09년 그룹 유동성 악화에 따라 같은 해 12월 금

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대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5년간 자구책을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2010년 858%의 부채비율을 올해 3분기 말 149%까지 낮췄다. 신용평가기관도 금호타이어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상승시켰다.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을 벗어난다면 채권단이 보유한 지분도 곧 매각될 예정이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일가의 지분율은 현재 7.9%다. 박 회장은 채권단 보유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광주상공회의소는 채권단의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졸업 최종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논평을 내놓았다. 광주상의는 “5년여 동안 금호타이어 노사 각·관리하기 위해 주주협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그간 노사의 희생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표한다”며 “워크아웃 졸업을 계기로 금호타이어와 지역 경제가 더욱 성장·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동률기자 dxian@kwangju.co.kr

## 상무소각장에 2014년 대미미술관

문화중심도시 연차별 실시계획

광주 ‘아시아 다문화 거리’ 조성

오는 2016년부터 광주에 ‘아시아 다문화 거리’가 조성되고 음악산업이 본격 육성된다. 폐쇄될 예정인 상무소각장은 아시아근대미술관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디어 창의도시’라는 광주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 구축, 만화영화 주인공을 주제로 한 캐릭터 시티(Character City) 조성사업도 착수된다.

광주시는 23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연차별 실시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신규 사업 8건을 포함한 모두 42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시가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수립하는 장기 사업계획으로, 오는 2016년부터 추진된다.

〈관련 기사 3면〉

아시아 다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서울

의 이태원, 홍콩의 필리피나 거리 등을 본 뜬 것으로, 외국인 노동자·이주여성·유학생들을 위한 이색거리를 만들겠다는 게 골자다.

광주시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문화전당 주변과 도심재생 지역의 특정공간을 미디어 아트 거점으로 만들고 작품을 창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미디어 아트 플랫폼 조성사업’도 추진 된다.

문화전당 개관효과를 도시 전체로 파급하기 위한 캐릭터 시티(Character City) 조성사업도 첫삽을 뜬다. 문화전당 내 어린이문화원과 연계해 광주 5개 구에 7개 캐릭터 하우스를 만든다는 게 골자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코코몽’, ‘뽀로로’ 등을 주제로 지역 작가와 IT업체가 협업을 바탕으로 캐릭터 하우스를 만들어 문화상품으로 만든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강정호 '해적선' 탄다 ▶20면

PIRATES 포스트링지는 ML 피츠버그

광신대학교 2015 정시모집

신학과, 국제한국어교원학과, 유아교육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음악학과, 실용음악학과

12월 24일(수) 접수마감

문의: 062)605-1114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오염되지 않은 땅, 농부의 정성

## 전남쌀 5개 브랜드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쌀로 선정되었습니다.

- 금성 대승원은 담양쌀 금성농협 061-383-4503
- 은상 나비쌀 함평군농협 061-323-4060
- 은상 프리미엄 호랑 경진군농협 061-432-0560
- 홍성 한눈에반한쌀 해남군농협 061-535-5636
- 홍성 수호천사 건강미 고흥농협 061-835-0540

· 농림축산식품부와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 12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  
·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 「친환경 전남쌀」 8년 연속 선정

www.jnmail.kr  
주부전화: 080-888-2100

맛있는 전남 쌀을 남도장터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